

# 순천시,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 '하자발생' 최소화

## 공공시설물 인수TF팀 운영...건설시공 정착 유도 효과 수시 점검 등 시설물 상태 확인·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순천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TF팀' 운영을 통해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설시공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왕지2지구와 선월지구 등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업 준공 후 순천시

가 인수할 예정인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은 주요 공공시설물시공 과정에서 품질 적합성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 인수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신대지구에서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당달아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주요 공정의 사전 검사(감독) 및 준공 이후 예상되는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인수 공공물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인수 공공물 점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담당할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도시계획과장이 총괄하며 도

시개발팀장과 도로과, 교통정책관리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과, 기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팀 점검 대상은 민간과 공공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점검은 시공단계와 준공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시공단계는 사업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가로수 등에 대한 시공 적정성, 민원 발생 예상 현장을 점검하고, 준

공단계는 총괄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계획 인가조건 이행 여부,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다. TF팀은 조만간 인수예정인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6차례 실시해 상하수도 관련 미비점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보안시정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소재 명확화, 유지관리비 최소화, 현장 사업자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거뒀으며 순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해당부서

인 도시과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했다. 이강범 순천시 도시과 과장은 "그동안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고, 시공·준공 단계에서 현장과 상호협업체제 공을 원천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사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홍길동파크' 잇는다

## 장성군, 1.9km 규모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 착공...10월 준공 목표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성 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8천여만 원을 투입해 약 1.9km 규모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황룡면 백호리 매실마을에서 시작해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까지 이어진다. 장성군은 해당 사업으로 ▲둘레길 개설 및 정비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며, 오는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 인물로 알려진 홍길동이 살았던 아치실 마을에 조성된 관광 명소다. 홍길동 생가와 의적들이 머물던 산채 등이 복원돼 있다. 주말마다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여름에는 분수를 가동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다. 분수는 주말·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평일에도 가동한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 사립 교육 기관이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

을 제창하고 있으며, 당시 학자들의 생활상과 사회·경제상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 유산이다. 고즈넉한 풍경 뿐만 아니라 즐길거리도 갖췄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체험 프로그램 '필암서원 가는 길'과 선비축제 '하서와 함께 걷다'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련된 행사며, 일정 등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광주문화나루(062-672-6966)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을 잇는 매실마을 둘레길 이 장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홍길동 테마파크 바닥분수(왼쪽)와 필암서원 선비 체험 모습. (장성군 제공)

# 곡성 흑찰옥수수, 최대 30%할인 기획전

## 31일까지 곡성물서 판매...찰진 맛·고소함 일품

곡성군은 15일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서'이 31일까지 '멈출 수 없는 쫄면함, 곡성 흑찰옥수수 최대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은 생

옥수수와 냉동 옥수수 두 종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생옥수수는 주머니 들어온 당일 수확해 속껍질을 남긴 채 껍질째 손질 후 우매 고객에게 배송한다. 냉동 옥수수는 수확 당일 전동 방식

으로 가마솥에 삶은 후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해 배송한다. 찜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조리하면 갓 찜낸 듯한 쫄면하고 찰진 흑찰옥수수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곡성군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옥수수 재배에 최적의 환경으로 삼기면과 오산면에서만 155농가, 44ha 규모의 흑찰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곡성 흑찰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와

비교했을 때 찰진 맛과 고소함이 남다르고, 씹었을 때 툭툭 터지면서 쫄면하고 연한 식감을 자랑한다. 한 번 맛보면 계속 찾게 돼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많다. 곡성군 관계자는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간식으로 흑찰옥수수가 제격"이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흑찰옥수수를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구례군,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박차'

## 지속가능 에코시티 실현 목표...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최근 '3GO-에코원정대'를 시작으로 '2024년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전남남서지방생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군민의 생활 속 생태 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은 '순환과 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에코시티 구례 실현을 목표로, 생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지역 자연 자원 활용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이번 교육은 11월까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3GO-에코원정대', 커피 찜찌기를 활용한 '친환경 성과물 제작',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수목원, 지리산정원, 수달생태공원 등 구례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군민이 체험하고 동참하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평생학습도시로서 빈틈없는 교육복지 실현하고, 전남형 으뜸 생태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고흥 프리미엄 유자' 생산 연구 본격화

## 유자연구소 개소...품종 육성·가공제품 개발 집중

고흥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내 유자연구소 설립을 통해 세계 최고 프리미엄 고품 유자 생산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소 설립은 고품 유자의 명성을 더욱 높이고 유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고품군은 유자 지리적표시제 14호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며,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유자 재배의 1번지다. 하지만 최근 해외 경쟁 심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고품 유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 유자의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유자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프리미엄 유자 생산에 적합한 품종 육성, 동해 안전 생산 기술 정립, 수출에 적합한 가공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유자통합법인과 협력해 우량품종 유자단지를 조성·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민 고품군수는 "유자연구소 설립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유자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자연구소가 세계 최고 프리미엄 고품유자의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최보환 기자

# '화순 특산물 복숭아' 온라인 판매 추진

## 28일까지 화순팍·남도장터·카카오쇼핑 등서

화순군은 15일 "화순의 특산품이자 여름 대표 과일인 복숭아(사진)를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숭아는 육즙이 많고 과육이 달콤하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해 소화 잘되고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순은 복숭아 재배에 최적의 조건인 황토에서 풍부한 일조량으로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맛과 향에서 품미가 좋은 복숭아로 많은 소비자가 찾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회원망이 탄탄한 온라인몰을 통해 화순의 우수한 복숭아를 널리 알리고 복숭아 농가의 판매망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화순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화순우체국, 화순복숭아연합회 관계자들과 세 차례 미팅을 한 결과 복숭아연합회

40개 농가가 이번 화순복숭아 판매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였다. 복숭아 판매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팍 뿐만 아니라 남도장터(15-28일), 우체국쇼핑(22-28일), 카카오쇼핑(25-28일)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현진 농촌협력과장은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대량 출하되는 시기에 도매시장만 의존하면 재고를 받기 어렵다"며 "온라인 판매를 통해 농가는 제값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화순의 신선한 복숭아를 바로 배달받아 맛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화순 복숭아를 널리 알려 농가 소득 보전과 함께 여름철이면 전국민이 찾는 화순 복숭아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담양군, 급식소·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 18일까지 판매 급식소 56개소·음식점 645개소 대상

담양군은 15일 "오는 18일까지 학교 등 판매 급식소 56개소와 음식점 645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1대1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여부 ▲원재료 보관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집단 급식소 내 보존식 보관 의무 여부 ▲조리 기구 세척 및 살균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개인위생 사항 준수 여부 등이 다. 또한 여름철 주요 식중독균 오염 방지를 위한 달걀·생닭 취급 요령과 함께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날음식과 조리 음식은 갈·도마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등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하겠다"며 "식중독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도 손 씻기, 가열해서 섭취하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